



미 사립학교 살리는 한국학생

재정난에 빠진 미국의 사립기숙 중고교들이 한국의 부유층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여 문제를 빚고 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숙 학교는 연간평균 1만7천달러(약 1천4백만원)에 이르는 수업료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줄어들자 자구책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 학생들을 무리하게 모집하고 있다.

기숙학교들은 학생 유치에 급급해 소개업자들에게 유치비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으로, 사전에 유치학생들의 자격이나 영어실력, 미국생활에 대한 지식 등을 파악하는 노력을 않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원 1백25명의 윈첸스쿨을 예로 들며, 이 학교에 들어간 한국 학생들이 매해 실력부족과 기율문제로 퇴학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학생을 비롯해 많은 외국 학생들은 영어를 제대로 못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못한다. 서울에서 이 학교에 유학한 윤아무개(16)양은 “우리는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끼리만 논다”며 미국 친구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저널〉은 그러나 기숙학교쪽은 이런 실정을 배려하지 않아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역시 한국 학생들이 많은 메인주 헤브론아카데미의 입학 담당관은 한국 학생 유치를 위해 “유치학생 1명당 1천6백50달러씩 유치업자에게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유치활동 덕분에 기숙학교의 외국인 학생수는 88년 이후 2배인 5천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기숙학교 학생 총수의 12.4%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윈첸스쿨의 경우 6년 전까지 빚에 허덕였으나 돈 잘내는 한국 학생 등 부유한 외국 학생 유치로 형편이 나아져 지금은 단 한푼의 빚도 없다고 〈저널〉은 말한다.

홍콩/연합